

한국학을 말한다

# 미국 코넬(Cornell) 대학의 한국학 운영 현황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국어학 전공  
hmhmoon@aks.ac.kr

- I. 머리말
- II. 한국학 강좌 현황
- III. 한국어 강좌 현황
- IV. 한국학 자료 현황
- V. 맺는말

본 연구는 2008년도 본원의 해외파견 연구비 지원에 따라 이루어졌다.

## I. 머리말

미국 내에서는 학부나 대학원에 한국학과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이다. 상당수 대학에서는 한국학을 중국학, 일본학과 함께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이나 아시아학(Asian Studies)의 일부로 운영하는데 한국학의 학문적 연혁이 일천한 탓에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하면 여러 모로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동부지역 아이비리그(Ivy League)의 일원이면서 필자가 본원 해외과건 사업의 일환으로 파견된<sup>1)</sup> 코넬대(Cornell University)에서도 비슷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넬대에서는 아시아학과(Department of Asian Studies) 내에 한국학 전공을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한편,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일찍부터 동아시아 프로그램(East Asia Program, EAP)을<sup>2)</sup>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코넬대 아시아학과나 동아시아 프로그램 내에서 한국학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비중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우선 한국학 전공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이 전무할 뿐 아니라 ‘한국 입문(Introduction to Korea)’과 같이 극히 기초적인 강좌를 제외하면 한국학과 관련된 강좌도 찾아보기 어렵다. 코넬대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대표적 출판물이라 할 수 있는 코넬 동아시아 단행본 시리즈(Cornell East Asia Series, CEAS)에서도 한국학과 관련된 단행본은 전체의 15%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최근 코넬대 내에서는 한국학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이 늘면서 한국어 강좌가 점차 확대되는가 하면 ‘한국 입문’과 같이 한국 내지 한국학을 소개하는 강좌에 40명을 넘는 기록적인 인원이 수강 신청을 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계 유학생이 급증하여

---

1) 필자는 2008년 7월 29일부터 2009년 7월 29일까지 1년간 코넬대 동아시아 프로그램에 방문 학자(visiting scholar)의 자격으로 체류하였다(host: John B. Whitman 언어학과 교수).

2) 코넬대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은 1865년 코넬대가 설립된 이래로 시작되어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프로그램은 중국학을 위주로 한 China Program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 일본학이 추가되면서 China-Japan Program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한국학이 추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동아시아 프로그램으로 개편된 것은 1988년 이후의 일이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위를 점할 정도로 학내 비중이 커진 것도 한국학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 당국에서도 이러한 한국학의 수요에 부응할 방안을 모색하려 하지만<sup>3)</sup>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전임 교원을 충원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코넬대 내 한국학의 위상을 제고시킬 적기라 할 수 있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코넬 대학 내 한국학과 관련된 운영 실태를 한국학 강좌, 한국어 강좌, 한국학 자료 등으로 나누어 점검하되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할 때 한국학과 그들의 격차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격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 격차를 줄일 방안도 자연스레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넬대의 실태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미국 내 상당수 대학에 공통될 것이므로, 본 조사는 코넬대를 넘어 (본원의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미국 내 한국학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한국학 강좌 현황

코넬대에서 동아시아학은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의 순서로 정착되었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앞의 각주 2) 참조). 학부나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수요도 이러한 정착 순서를 반영하여 (2008-2009학년도도의 경우) 일본학 강좌는 대략 중국학 강좌의 2분의 1 수준, 한국학 강좌는 일본학 강좌의 6분의 1 수준 정도로 개설되고 있다. 아래에서 그 개설 강좌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한 예로 2008년 6월 26일-29일 코넬대에서 개최된 국제한국어학회(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ICKL) 국제학술대회를 들 수 있다. 이 학술대회는 인근의 병행된 대학과 공동 유치하여 개최된 것인데 코넬대에서 한국어학을 주제로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1. 한국학 강좌

코넬대에서 동아시아학과 관련된 강좌는 아시아학과를<sup>4)</sup> 중심으로 역사학과, 인류학과, 언어학과 등 여러 학과(또는 전공)에서 개설된다. 이들 강좌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개설된 중국학/일본학/한국학 강좌의 전체 수효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최근 5년간 코넬대 중국학/일본학/한국학 강좌 개설 현황 비교 (2004-2009)

학 년 도	중국학 A(B)	일본학 A(B)	한국학 A(B)
2004(F) - 2005(S)	25(14)	16(11)	2(0)
2005(F) - 2006(S)	19(10)	16(10)	2(0)
2006(F) - 2007(S)	20(15)	13(10)	1(0)
2007(F) - 2008(S)	23(16)	10(8)	2(0)
2008(F) - 2009(S)	25(16)	12(8)	2(0)

주: A(B)에서 A는 개설된 총 강좌 수, B는 둘 이상의 전공이 협동하여 개설한 학제간 강좌 수를 이룸(단, 중국·일본·한국과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는 강좌 수에서 제외)<sup>5)</sup>

위의 표는 코넬대 내에서 한국학의 강좌 비중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학 개설 강좌라고는 아시아학과에 매년 개설되는 입문 과목(Introduction to Korea)을 제외하면 1 강좌 정도가 더 개설되거나 하는 것이 고작일 뿐이다.<sup>6)</sup> 이러한 현실은 중국학이나 일본학에서 분야(문학, 종교, 사회, 문화 등)와 시기(근현대, 전근대 등)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강좌가 고루 개설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그 동안 개설된 한국학 과목에서는 두 개 전공 이상이 협동하여 개설한 학제간(學際間, interdisciplinary) 과목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학과 일본학 개설 과목의 60% 이상이 학제간 과목임을 감안할 때, 한국학이 학제간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중국학, 일본학과

4) 2006-2007학년도부터 China and Asia-Pacific Studies(CAPS) 전공이 아시아학과로부터 분리되어 (학부에서) 독립 전공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CAPS에서 개설된 중국학 강좌도 통계에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5) 자료 출처: Cornell University(2005-2009), *Courses of Study*.

6) 입문 과목 외에 개설된 강좌로는 'Korean Music'(음악학과 J. H. Kim 교수 담당)과 'Intellectuals in the Early Modern Korea'(아시아학과 Michael Shin 교수 담당)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비교할 때, 한국학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아직 학문적 기반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2. 한국학 교원 및 수강생

이러한 현실은 한국학 강좌를 담당하는 전임 교원 현황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8-2009학년도 의 경우 동아시아 프로그램이나 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은 말 그대로 전무한 실정이다.

표2-2008-2009학년도 코넬대 중국학/일본학/한국학 전임 교원 현황

직 위 \ 강 좌	중국학 A(B)	일본학 A(B)	한국학 A(B)
정 교수 Professor	9(1)	6(2)	0(0)
부 교수 Associate Professor	7(2)	2(1)	0(0)
조 교수 Assistant Professor	6(1)	2(2)	0(0)

주: A(B)에서 A는 East Asia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전임 교원, B는 아시아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 교원을 이룸<sup>7)</sup>

이 같은 현실이 빚어진 것은 그 동안 아시아학과 내 유일한 전임 교원이었던 Michael Shin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Oxford) 대학으로 이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아시아학과에서는 M. Shin 교수를 포함, 최소한 2인의 한국학 전임 교원을 두어 코넬 대학 내 한국학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M. Shin 교수의 이직으로 이러한 계획은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2008년에 닥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의 여파로 코넬 대학도 신임 교수의 임용을 전면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학 교수의 충원 문제는 향후 2년 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7) 자료 출처: East Asia Program(2005-2009), *East Asia Program Directory*.

전임 교원이 없는 상태에서 2008-2009학년도 한국학 강좌는 방문 교수(Visiting Professor)를 초빙하여 이루어졌다. 아시아학과에서는 Jacline Pak 선생님(미국 의회도서관 사서)을, 역사학과에서는 Hyun-Ju Seo 선생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을 각각 초빙하였는데, 두 분이 담당한 강좌와 해당 강좌의 수강생 현황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2008-2009학년도 한국학 강좌와 수강생 현황

강좌명	담당 강사	수강생	수강생의 국적별 분포
Introduction to Korea (2008 Fall)	Jacline Pak	42	30 (한국계 유학생 내지 교포) 9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3 (미국 등 구미권)
Historical Controversies over Korea in East Asia (2008 Fall)	Hyun-Ju Seo	10	10 (한국계 유학생 내지 교포)

Jacline Pak 선생님 담당 강좌는 아시아학과의 학부 강좌로 개설되어 영어로 진행되었다. 수강 신청시 40명이 넘는 기록적인 수강생 수를 기록하였는데, 한국계 학생 외에도 아시아권이나 구미권의 학생들도 관심을 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 입문 강좌에 이어 한국이나 한국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강좌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강좌 개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yun-Ju Seo 선생님 담당 강좌는 역사학과의 대학원 세미나 강좌로 개설되어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수강생은 대부분 한국계 유학생이었는데 수업이 영어로도 진행될 수 있었다면 훨씬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적절한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당국과 협의하여 본원의 '해외 한국학 강의파견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양한 한국학 분야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가 파견될 수 있다면 (전임 교원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한국학 강좌 개설을 다양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수강생 현황에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코넬 대학 내에서 당분간 한국학 강좌를 필요로 하는 일차적 수요자가 현재로서는 한국계 유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Introduction to Korea' 강좌에 몰린 수강생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계 유학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4-최근 5년간 코넬대 외국인 유학생 상위 5개국 추이 (2004-2009)

학 년 도	1위 (A/B)	2위 (A/B)	3위 (A/B)	4위 (A/B)	5위 (A/B)
2004(F) - 2005(S)	캐나다 (436/276)	중국 (397/40)	<b>한국</b> <b>(346/155)</b>	인도 (333/46)	일본 (129/34)
2005(F) - 2006(S)	캐나다 (472/271)	중국 (410/52)	<b>한국</b> <b>(399/208)</b>	인도 (346/47)	일본 (115/26)
2006(F) - 2007(S)	캐나다 (504/277)	<b>한국</b> <b>(500/271)</b>	중국 (401/56)	인도 (382/51)	싱가포르 (114/75)
2007(F) - 2008(S)	<b>한국</b> <b>(538/285)</b>	캐나다 (477/258)	중국 (462/62)	인도 (413/57)	싱가포르 (105/76)
2008(F) - 2009(S)	<b>한국</b> <b>(550/317)</b>	캐나다 (515/277)	중국 (512/93)	인도 (395/55)	싱가포르 (119/96)

주: (A/B)에서 A는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총 유학생 수, B는 학부에 재학중인 학생 수만을 이룸<sup>8)</sup>

코넬대 내에서 한국계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는데 최근 5년간 코넬대 외국인 유학생 수 상위 5개국의 추이를 보면 <표4>와 같다.

표의 외국인 유학생 추이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 유학생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7-2008 학년도부터는 국적별 유학생 수에서 1위를 점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계 유학생 수의 추이와 정확히 반대되는데, 일본계 유학생 수는 2005-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상위 5개국 안에 들 정도였으나 유학생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8-2009학년도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 멕시코(Mexico)에 이어 11위를 차지하고 있다(총 재학생 수 54명 가운데 학부 재학생은 9명에 지나지 않음).

둘째, 한국계 유학생 가운데 학부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와 대조되는데, 2008-2009학년도의 경우 상위 5개국 안에 든 나라들 중 중국은 학부생의 비율이 17%, 인도는 14%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과반을 넘는 무려 58%에 달한다. 학부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등학교 이전에 조기 유학을 왔다가 미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을

8) 자료 출처: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ffice(2005-2009), *Annual Statistics Report*, <http://www.isso.cornell.edu>.

의미한다. 학부 유학생은 한국이나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 향후 코넬대에서 한국학 강좌의 잠재적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국학 강좌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 우선 급선무는 당연히 한국학 전임 교원을 충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임 교원은 소속 학과 등에서 새로운 강좌 개설을 제안하거나 신청할 권한을 지니고 있고,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 한국학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프로그램과 같이 학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 대학 내 한국학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코넬대에서는 아시아학과와 동아시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향후 2년 내 한국학 전임 교원 2인을 충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sup>9)</sup> 한국학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코넬대에서는 전임 교원 충원 시점에 본원의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신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므로 코넬대 내 한국학 진흥의 목표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면 본원의 사업 취지에 부응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I. 한국어 강좌 현황

코넬대에서 개설되는 언어 강좌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여러 언어에 대한 강좌는 공식적으로 아시아학과(Department of Asian Studies)에 개설되어 운영된다. 현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비롯하여 벵골어, 미얀마어, 힌디어, 인도어, 네팔어, 산스크리트어, 베트남어, 팔리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우루두어 등 총 15개 언어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한국어 강좌는 수강생 규모 면에서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3위를 점하지만 개설되는 과목의 실상은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

9) 2009년 7월 27일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Director인 Ding Xiang Warner 교수와 면담 조사를 할 때 직접 청취한 내용이다. Warner 교수는 아시아학과에 1인, 역사학과에 1인의 전임 교원을 충원하고 한국학을 대상으로 Post-doctor Program도 신설할 예정임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 1. 한국어 강좌

코넬대 아시아학과에 개설되는 언어 강좌와 관련하여 그 개설 과목의 성격은 크게 다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① 일반 언어 강좌

각 언어마다 초급(Elementary), 중급(Intermediate), 고급(Advanced) 등의 수준별 강좌가 개설되는 것이 보통인데, 수강생이 많은 주요 언어의 경우 수준(예: 중고급[High Intermediate]의 신설)이나 영역(예: ‘말하기/듣기’와 ‘읽기/쓰기’의 구분) 등이 보다 세분화되기도 한다.

② 연중 집중 언어 강좌(Full-year Asian Language Concentration, FALCON)

1년 내내 주 5일, 매일 다섯 시간씩 진행되는 집중 언어 강좌(intensive language courses)로서, 대상 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초급자가 1년 내에 고급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 ③ 심층 언어 강좌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일반 언어 강좌와 달리 언어 능력이 비교적 유창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학 언어 등을 탐구하기 위한 강좌이다.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다루는 것이

표5-최근 5년간 코넬대 중국어/일본어/한국어 강좌 개설 현황 비교 (2004-2008)

학년도	강좌	중국어 A (B+C+D)	일본어 A (B+C+D)	한국어 A (B+C+D)
2004(F) - 2005(S)		34 (22+3+9)	32 (21+3+6)	14 (11+0+3)
2005(F) - 2006(S)		36 (22+3+11)	31 (21+3+7)	13 (12+0+1)
2006(F) - 2007(S)		38 (24+3+11)	33 (22+3+8)	12 (10+0+2)
2007(F) - 2008(S)		41 (28+4+9)	28 (18+4+6)	14 (12+0+2)
2008(F) - 2009(S)		43 (30+4+9)	21 (12+4+5)	17 (15+0+2)

주: A(B+C+D)에서 A는 (합산한) 총 강좌 수, B는 일반 언어 강좌 수, C는 FALCON 강좌 수, D는 심층 언어 강좌 수를 이룸<sup>10)</sup>

보통이지만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현대어 이전의 고전 문헌어를 다루기도 한다.

이들 세 부류의 강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 들 뿐이다. 네팔어를 비롯하여 상당수 언어는 첫째 부류(① 일반 언어 강좌)만 개설될 뿐이고 그것도 초급과 중급 두 수준이 고작인 경우가 많다. 한국어는 첫째 부류(① 일반 언어 강좌)와 셋째 부류(③ 심층 언어 강좌) 강좌가 개설되고 있지만 중국어, 일본어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세 부류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개설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강좌 현황을 비교, 제시하면 앞의 표와 같다.

표에 제시된 강좌 수를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어 강좌의 현실은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한국어에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아직 FALCON (Full-Year Asian Language Concentration)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FALCON은 1년 내내 주 5일, 매일 다섯 시간씩 진행되는 집중 강좌로서, 초급자가 1년 내에 고급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아시아학과에서는 학부나 대학원의 전공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 FALCON 강좌의 일정 학점을 취득하도록 권하고 있어 FALCON 강좌는 단순한 언어 강좌를 넘어 아시아학 내 해당 전공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에 FALCON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학 내에서 그만큼 한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현실과 직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최근 한국어 강좌의 개설 과목 수효(=종류)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sup>11)</sup> 예컨대 일반 언어 강좌의 경우, 2008-2009 학년도에는 기존의 초급, 중급, 고급에 더하여 중고급(High Intermediate)의 수준이 추가되어 개설 과목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강좌의 추세는 일본어 강좌의 개설 과목 수효가 근래 급격히

10) 자료 출처: Cornell University(2005-2009), *Courses of Study*.

11) 이는 개설 과목의 수효에 국한된 것이다. 해당 과목의 수강생이 많아 (subcourses로) 분반되는 경우까지 과목 수효에 넣지는 않았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데, 두 추세가 엇갈리면서 일본어 강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한국어 강좌의 개설 과목 총수가 2008-2009학년도에는 일본어 강좌 수준에 거의 근접한 정도에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학문적 수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코넬대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는 현실만큼은 한국학 전반에 고무적인 현실이라 하겠다.

셋째, 한국어 강좌의 증가 추세 속에서도 심층 언어 강좌의 수효는 (매년 2과목 정도로)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강의를 담당할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 근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본원의 해외 한국학 강의 파견 사업 등과 연계하여) 담당 교원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일본어 강좌에서 개설되는 수준만큼 과목 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일본어 강좌에서 개설되는 'Readings in Classical Japanese',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 Vocabulary and Grammar of Classical Japanese', 'Japanese Philosophical Discourse' 등은 한국어 강좌에서 개설 과목을 다양화하고자 할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다.

## 2. 한국어 교원 및 수강생

중국어/일본어 강좌와 한국어 강좌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는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 수효와 그 지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당장 2008-2009학년도 코넬대 아시아학과 내 중국어/일본어/한국어 교원 현황만을 비교하더라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 교원의 열세는 뚜렷하다.

표6-2008-2009학년도 코넬대 아시아학과 내 중국어/일본어/한국어 교원 현황<sup>12)</sup>

지 위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선임강사 Senior Lecturer	4	5	0
강 사 Lecturer	2	1	2
조 교 Teaching Assistant	6	2	1

위의 표를 보면, 우선 강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선임강사(senior lecturer) 지위에 이른 강사마저도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강사 1인이 담당하는 한국어 강좌 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선임강사의 부재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동아시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선임강사를 확보하고 강사 수를 늘려 수강생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원의 열세 속에서도 한국어 강좌 수강생은 2008년에 닥친 미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아래 최근 2년간 한국어 강좌 수강생 현황을 보면,<sup>13)</sup> 2008-2009학년도에는 고급 한국어 강좌가 처음 개설되면서 중급 이상의 강좌에서 수강생 수가 다소 감소한 것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중급과 달리 초급 강좌의 수강생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제 위기가 해소될 경우 한국어 수강생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표7-최근 2년간 한국어 강좌 수강생의 강좌별(=수준별) 분포

학년도	강좌명	K101-2	K109-10	K201-2	K209-10	K301-2	K401-2	총계
	(초급) S/H	(초급) R/W	(중급) S/H	(중급) R/W	(중고급)	(고급)		
2007(F) - 2008(S)		38	20	26	31	22	(개설 안됨)	137
2008(F) - 2009(S)		47	30	10	19	12	13	131

주: S: 말하기, H: 듣기, R: 읽기, W: 쓰기

한편, 한국어 강좌 수강생 가운데 한국계 이외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 최근 2년간 한국어 강좌 수강생의 국적별 분포 현황을 보면,<sup>14)</sup> 교포가 아닌 수강생의 비중이 17-19%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비중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한 한류의

12) 자료 출처: East Asia Program(2005-2009), *East Asia Program Directory*.

13) 한국어 강좌를 담당한 Meejeong Song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선생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14) 역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한 Meejeong Song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제 위기가 해소되고 자금과 같은 한류의 영향이 지속된다면 한국어 수강생의 국적별 분포는 더욱 다양화되고 그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어를 처음 접한 초급 강좌의 수강생이 이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sup>15)</sup>

표8-최근 2년간 한국어 강좌 수강생의 국적별 분포

학년도	국적	미국 (교포)	미국 (비교포)	중국/대만	일본	러시아	총계
2007(F) - 2008(S)		117	6	12	1	1	137
2008(F) - 2009(S)		108	9	13	0	1	131

#### IV. 한국학 자료 현황

한국학 연구가 본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코넬대의 한국학 자료 현황을 도서관 소장 자료와 단행본 출판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한국학 관련 도서 현황

코넬 대학 내에서 아시아학 관련 도서는 1992년에 개관된 Kroch 도서관에 집중 소장되어 있다. Kroch 도서관은 북미 지역 내 아시아 문헌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한 도서관으로 유명한데, 한국학 관련 도서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Wason 문고에서 관리되고 있다. Wason 문고는 1918년 (코넬대 졸업생인) Charles W. Wason의 기증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되어 2009년 6월 현재 총 63만 7,775권의 문헌 자료를 소장하고

15) 예컨대 Meejeong Song 선생님께서는 학생기숙사 중 한국어만 사용하는 'Korean Language House'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든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국어 집중강좌에 해당하는 'Summer Intensive Program'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있다. Wason 문고 소장 도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중국학/일본학/한국학의 도서 수효와 그 증가 추세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9- 최근 5년간 Kroch 도서관 Wason 문고에 소장된 중국학/일본학/한국학 도서 수효와 그 증가 추세의 비교 (2005-2009)

기 간	중 국 학 ( $\Delta A + B$ )	일 본 학 ( $\Delta A + B$ )	한 국 학 ( $\Delta A + B$ )
2005.6 이전까지	362,904	140,339	9,089
2005. 7 - 2006.6(증가분)	$\Delta 6,498 + 286$	$\Delta 3,496 + 251$	$\Delta 701 + 53$
2006. 7 - 2007.6(증가분)	$\Delta 5,644 + 482$	$\Delta 5,116 + 269$	$\Delta 894 + 100$
2007. 7 - 2008.6(증가분)	$\Delta 5,070 + 254$	$\Delta 2,493 + 247$	$\Delta 991 + 67$
2008. 7 - 2009.6(증가분)	$\Delta 7,428 + 248$	$\Delta 2,300 + 216$	$\Delta 998 + 39$
총 계	388,864	155,227	12,932

주:  $\Delta$  표시는 증가분을 의미하고, A+B에서 A는 단행본(monographs) 수, B는 연속간행물 수(serials) 수를 이룸<sup>16)</sup>

표는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총수에서 한국학의 미미한 위상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준다. 코넬대에서 출발이 늦었다고 하는 일본학과 비교하더라도 한국학 도서 총수는 일본학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 이후 일본학 도서의 증가 추세가 크게 주춤해진 것에 비해 한국학 도서는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학 도서의 전체 규모 자체가 보잘것없는 탓에 현상 유지 자체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2007년에 한국학 도서의 연속 간행물 수가 이전보다 배 가까이 늘게 된 사실이다.<sup>17)</sup> 필자의 실사 결과 이는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으로부터 한국학 도서 구입 자금을 지원 받은 결과였다.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계기로 Korch 도서관에서는 한국학 자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게 되었고 지원이 더 이어지지 않게 된 뒤에도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협조 아래 Office Manager의 자격으로

16) 자료 출처: Council on East Asia Libraries(2009), *CEAL Statistics Database 2006-2008, For North American Institutions*, <http://lib.ku.edu/ceal>. 구체적인 통계 사항은 Kroch 도서관에서 한국학 분야를 담당한 Carrie Yang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17) 2008년 이후 연속 간행물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온라인 이용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의 담당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재개된다면, 전담 사서(bibliographer)를 두고 있는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학 자료를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직원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한국학 관련 출판 현황

코넬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되는 한국학 관련 출판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코넬 동아시아 단행본 시리즈’(Cornell East Asia Series, CEAS)를 들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중국, 일본, 한국(북한 포함) 등 동아시아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학술 저서(monographs), 문학 번역서, 대학 교재, 학술 논문집 등 다양한 성격의 단행본을 출판하여 학계와 일반 사회의 동아시아 이해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코넬대 동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이 시리즈는 1970년부터 간행이 시작되어 2009년 현재 그 동안 간행된 단행본 수가 총 95권에 이를 정도로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데, 매년 (최대 8권까지) 새 단행본이 출간될 때마다 1만 부 이상이 판매되고 2,500부 이상은 대학 교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2008년까지 출간된 단행본 85권 가운데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의 출판 현황을 내용별, 연도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0-코넬 동아시아 시리즈 내용별 출판 현황 (1970-2008)<sup>18)</sup>

분류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근현대	저서	10	13	0
	편저 (=논문집)	2	7	0
	역서	3	14	13 (시 10, 소설 3)
소계		15	34	13
전근대	저서	3	9	2
	편저 (=논문집)	2	1	2
	역서	4	8	2
소계		8	18	6
총계		24	52	19

표11-코넬 동아시아 시리즈 연도별 출판 현황 (1970-2008)<sup>19)</sup>

출판 연도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1980 이전	2	2	0
1981 - 1985	0	2	0
1986 - 1990	0	5	0
1991 - 1995	10	9	5
1996 - 2000	6	10	9
2001 - 2005	4	14	5
2006 - 2008	2	10	1
합 계	24	52	19

위의 두 표에 제시된 통계를 통하여 아래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전체에서 한국학 관련 단행본의 출판 비율이 15%를 넘지 못할 정도로 한국학의 출판 비중이 낮다. 특히 일본학과 비교하면 그 출판 비중의 차이가 더욱 심하여 한국학은 일본학 출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표10). 한국학의 비중 축소는 근래에 들어 더욱 심화되어 2006년 이후 일본학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표11).

둘째, 한국학 관련 단행본의 출판은 번역, 그것도 현대 문학 작품의 번역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10). 근현대와 전근대를 막론하고 한국학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반영한 출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학이나 일본학에서 전체 출판(=단행본)의 절반 이상을 단순한 번역이 아닌 저서나 편저 등 학문적 연구서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원의 해외한국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원의 사업 가운데는 ‘한국학 저서 번역사업(해외한국학지원실)’과 ‘한국학 고전 라이브러리 100선사업(한국학진흥사업단)’이 있는데 이들 사업의 결과물을 ‘코넬 동아시아 시리즈’와 연계하여 출판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은 각각 한국학 교재나 한국학 고전의 영문 번역을 지향하고 있어 ‘코넬 동아시아 시리즈’의 출판 목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가, ‘코넬 동아시아 시리즈’는 저자

18) 자료 출처: CEAS Editorial Office(2008, 2009), *Cornell East Asia Series*.

19) 자료 출처: CEAS Editorial Office(2008, 2009), *Cornell East Asia Series*.



범위가 개방되어 있고 저자 자비 출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원의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번역 원고를 확보하고 출판 경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코넬 동아시아 시리즈'와 연계하여 (시리즈의 전통과 권위를 활용한) 중장기적인 출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익할 수 있다. 이는 '코넬 동아시아 시리즈'의 입장에서도 한국학의 영역을 확충하여 동아시아학 전반에 대한 출판의 균형을 가져오게 되므로 원고 선정과 편집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권한만 철저히 존중된다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 맺는말

본 조사에서는 코넬 대학의 한국학 운영 실태를 한국학 강좌, 한국어 강좌, 한국학 자료 등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학문적 연혁이 앞선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할 때 한국학과 그들의 격차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원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행할 사업과 관련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방안도 단편적으로나마 언급하였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을 면밀히 살피지는 못하였다. 재정 상태에 대한 자료는 학교 당국의 전면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운영 예산과 재원 등이 파악되지 못한 것은 본 조사의 한계가 될 것이다.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대학 내 일본학의 학문적 기반에 대한 것이었다. 코넬 대학 설립과 거의 역사를 함께한 중국학과 달리 일본학은 그 출발이 상당히 뒤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학과 관련된 강좌 개설이나 도서 출판이 활성화된 것은 물론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효나 지위가 질적으로는 중국학을 능가하는 양상까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학이 대학 사회에 도입되어 정착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밟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 단체, 학술 단체의 역할(=지원)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본학보다 출발이 늦은 한국학 으로서는 일본학의 정착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한국학 진흥을 위한 유익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4, 2003.

김자현, 「북미 지역 인문과학 분야 한국학의 과제와 전략」.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2007.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2007.

CEAS Editorial Office(2008, 2009), *Cornell East Asia Series*.

Cornell University Library(2008), *Charles W. Wason Collection on East Asia, 90th Anniversary 1918-2008*.

Cornell University(2005-2009), *Courses of Study*.

Council on East Asia Libraries(2009), *CEAL Statistics Database 2006-2008, For North American Institutions*, <http://lib.ku.edu/ceal>.

East Asia Program(2005-2009), *East Asia Program Directory*.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Office(2005-2009), *Annual Statistics Report*, <http://www.isso.cornell.edu>.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아이비리그(Ivy League)에 속한 미국 코넬(Cornell) 대학을 대상으로, 코넬대의 한국학 운영 실태를 한국학 강좌, 한국어 강좌, 한국학 자료 등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구체적 목표는 학문적 연혁이 앞선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할 때 한국학과 그들의 격차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원의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그 격차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방안도 단편적으로나마 언급하였다. 코넬대의 한국학 실태는 한국으로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미국 내 상당수 대학에 공통될 것이므로, 이 글은 코넬대를 넘어 미국 내 한국학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 동아시아 프로그램(East Asia Program), 코넬대(Cornell University), 코넬 동아시아 시리즈(Cornell East Asia Series, CEAS), 한국학(Korean Studies),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Korean Studies Institution Grant, KSIG)